

의戒行은朝鮮佛敎史上에最後의光彩라고하겠습니
 李朝의末葉에 僧侶의入城을禁制한것은 理由는
 如何間에 朝鮮佛敎에對하여 此에過한耻辱이 업
 스티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우선先師께서는 이와
 가온耻辱을 바다가며 卒준하게도 참아나리왔습
 니다。그러하온것이 李太王의三十二年(一八九五)
 에日本日蓮宗僧佐野前勵의上書에依하여 겨우入城
 의禁이풀리고 明治四十三年(一九一〇)에 至하여
 비로소入城布敎를試하게되엇습니다。此時李晦光一
 派가日本曹洞宗과聯盟의約을結하여 朝鮮佛敎로하
 야공 曹洞宗에附屬코저하엿스나 朴漢永 韓龍雲

等諸師가 奮起하여 濟門의法孫으로서 洞門과合
 同의不可를論할뿐더러 이때까지든지 朝鮮佛敎의
 獨立을 主張하엿습니다。隱으로顯으로 此二師의
 功績이 적지아합니다。그럼으로吾人은 二師에
 向하여 敬慕함을마지아니하는同時 今後라도 此
 二師와가온人格者가 輩出하기를 希는바입니다。
 그러온것이寺刹令이頒布되고 寺法이制定됨에 朝
 鮮佛敎는兩宗으로써 冠하게되엇습니다。그러
 나此는一個吏員의無學을因하여 二宗의判別을失케
 한一稱의變態를現出케한것입니다。(未完)

錫蘭의佛敎

興起時代續

李 英 宰

靈髮奉記

廣詞男王 (Mahavamsa 412—434 A. D.) 後諸王子

의王位爭奪로因하여 國內가混亂하여지매 機會를
 엿모은 南印度 提毘族 (Tamil) 이襲來하여 北部
 一帶를占領하며獅子王統이연속되거니「부부나」(Ra

huna) 無憂王家 (獅子族의一侯國) 로부하 「다」부
 세」나」(Dhatusena)가義軍을이르키어서「提毘」族을
 驅하고 首都「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에서王
 位(433—479)에오른後 國法을嚴施하고 僧綱을
 勵行하고 보제佛事를지어 大寺 (Mahavihara)「마
 나」라僧院 (Manara Pirivena) 及青銅殿의古寺塔을修
 補하고 다시十餘寺塔을新築하엿스며 如意珠(○
 Jewel Gem)로點眼한佛像(佛奴王時所造云)이잇섯은
 바 先時에侵入한「提毘」軍「에게 兩眼如意珠을 奪
 掠을當하엿습으로 다시靑寶石으로點眼하고金銀
 寶珠로 後光(Halo)을莊飾하엿고 亞滿勒佛像을
 成造하고 聖齒殿에大享祀를行하고 摩晒陀長老의
 像을 그의葬地에奉立하여傳敎의大恩을追慕하는等
 護民護法에큰功이잇스니 이는王自身만이英明하엿
 습뿐아니라王의伯父요 亞願開인 大詩僧「大名」(Dip
 avamsa)에게한「가음이」만잇섯다。

王은大詩僧大名으로하여공 錫蘭島史를論述케하
 니이것이 곧 大史 (Mahavamsa)라「외자」(C
 iaya)王의 錫蘭征服의로 이王朝에이르기까지의
 史實을 舒事詩體로述著하엿스니 可謂錫蘭의摩

訶婆羅多 (Mahabharata)라 先時에編纂된島史 (Dip
 avamsa)와한가지 錫蘭의二大根本史料다。
 大史는 그後 續史가 僧院史家의손으로繼敎記
 述되야 一七五八年「다」자되 「다」자신하王 (Raj
 adhi Rajasinha)時代까지의것다。

이靈君「다」부세」나」의治績은實로僧院史家의讚
 筆에 감하고남음이잇스나 그의末路가甚히慘酷하
 야 印度頻婆娑羅王을聯想케하이잇스니 그는王子
 迦葉 (Kassapa I 479—97)의叛逆을마마서 無慘
 한生理를當함이다 迦葉이 이가처無道한手段으로
 王位를 차지하엿스나 大恨을 품고 印度로避禍한
 王의異腹弟 目健連 (Moggallana)의來襲을부러워
 하여 花城인「아누라」다푸라」首都를버리고 天
 險山地인獅岩 (Siri)으로王都를옮기고 宮殿을
 新營하며 懺悔佛寺로寺塔을造營하엿스나 王의惡
 業은贖하기애 닐우릿섯는듯하여 新都의단숨도변
 변히 이루기前에 目健連이 大兵을거느리고 印
 度로부러진니와서 迦葉을獅岩城下에廢黜하고 王
 統을이어서目健連一世 (Moggallana I 497—516)가
 되야 王都를다시「아누라」다푸라」로옮기고 獅

岩新宮을 價院으로 하여 大詩僧大名에게 寄進하였다.

王이 印度로 부려 引率하고 온 十二部將中에 戒時 (Sikula) 라는 자가 佛髮 (Kosa-dhatu) 一束을 齋來함이잇슴으로 莊嚴한 奉髮式으로 이를 마저서 奉安하였다. 後世에 編纂된 聖髮史 (Kosa-wansa) 에 依하면 其後에 다시 金銀으로 莊釘한 小箱中에 奉置하고 寶玉天蓋와 日傘을 가져와서 舍利子, 目健連兩首弟子像으로 하여 供奉立祀하여 在世時를 表象케 하였다 하나 主屬이 한가지 現存치 아니하다.

繼紹時代

錫蘭의 佛敎는 佛音三藏時即摩訶男王時代가 發達의 頂點이 었었다. 그 後의 錫蘭은 內亂과 外侵이 屢히 저지어나하고 各處에 侯族이 分據하여 國家의 統一을 보지 못하고 國民의 疲弊가 자못甚하미잇었다. 寺로서 佛敎는 前日과 거 顯著한 發達을 보지 못하고 大成時代의 뒤물이어서 잇기 쉬운 敎團內部的 墮落이 如나 아니 었는 듯하다. 亂世中에도 謹敎에 貞誠스려 王者가 間이나 나타나서 多幸히 三派가 敎勢를

支持함을 이었슴으로 이종약五六世紀를 繼紹時代라고 하노라. 그러나 第五世紀, 六世紀間의 史料가 缺乏되야 매우 困難을 빚기 온대 多幸히 當島「암반암고」(Ambalangada) 에 住한 佛蘭史家「말라아스·실라」(M. Meias Silva) 氏가 史料一部를 提供하여 本道을 이었슴으로 이에 記錄하여 氏의 厚誼를 謝禮하노라.

宗論의 再發

迦葉一世以後의 錫蘭은 漸敎, 內亂, 革命으로 가 장 混亂한 史期를 지었스나 그中에도 賢君이 아주 잇섯슴은 아니 었다. 首善提一世 (Aggabodhi I, 384-398) 는 一時內亂을 平定하고 貯池를 修築하여 產業을 獎勵하고 首善提學院 (Aggabodhi pirivena) 外에 만호學府를 設立하여 文敎의 恢復에 힘쓰고 佛蘭精舍外에 幾多의 頽落寺塔을 重修하여 舍衛아니라 金銀寶珠로 交飾한 佛一座를 舍利閣 (Inparana塔園) 에 獻納하고 約二十四婆羅 (Bhara) 重의 純金天蓋를 「후안웨라리」塔 (Ruwanveli Dagaba) 頂에 莊飾하였다.

錫蘭僧伽가 敎理問題로 一次分裂하여 三派들이

분파되는데 恒時葛藤이 屢히 저지어나하고 法喜部 (Abhayagiri) 와 舍竭部 (Jetavana) 가 方便이 되어서 大寺部 (Mahavihara) 를 相對로 反目 嫉視하여 왓스나 國難民疲의 影響을 받으면서 僧伽에서 도 閑暇시 없게 論爭을 일으켜 機會가 었었다. 이 首善提王時代와서 小康을 이었으며 法喜, 舍竭兩部가 先時戒時王 (Sikula 526) 時에 印度로 부려 齋來한 法界論 (Dhammathatu) 이라는 一論書를 所依로 하고 다시 大寺部에 挑戰함으로써 大寺部長老光護 (Tāpala) 가 이를 論破하며 王이 一精舍와 食邑을 長老에게 寄進하여 그의 功을 表彰하였다.

史料가 모다 大寺部僧侶의 手으로 記錄되어서 反對派의 所論은 多과 노코 異端으로 모아서 難送하여 버렸스며 舍竭部僧侶가 이 論爭의 土臺로 한 所謂 法界論 (Dhammathatu) 의 內容을 알 수가 없스며 아 마도 이것이 大乘系의 一論書이 었는 듯하다. 이는 史上에서 이 派를 恒時 辯異端派 (Watulin) 이라고 함이니 小乘인 그 眼目으로 大乘論을 볼 때에 詭辯異端이라고 하거기 쉬운 일일 뿐 아니라 이로 부러 過히 論지 아니한 時期에 渡來한 玄奘三藏의 所記에 依하면

「各擅專門 分成二部 (實則三部) 이 었스나 舍竭部는 恒時無畏山部와 協同하여 大寺部에 對하여 었슴으로 三藏은 舍竭, 無畏兩部를 同一派로 視한 듯」 一曰 摩訶毘阿羅住部 (Mahavihara 大寺部) 斥大乘習小敎, 二曰 阿跋邪祇釐住部 (Abhayagiri 法喜部) 學兼二乘弘演三藏 (西域記十一卷) 이라 하였스나 兩部의 所執이 어 데 잇섯을 可히 알 수 잇다. 即前者는 大乘의 詭를 斥하고 後者는 大寺部의 小乘의 局을 斥함으로 兩派間에 恒時葛藤이 었는 듯하다.

그러나 史上에 敎團論爭은 이것이 終幕이 되고 不遠한 後期에 三派의 合同을 보나니 이는 天當島內에 大乘敎의 滅絶을 意味함이 다. 非思索의 인獅子族에게 는 大乘敎가 元來 넘어 버거 었는 지라 그물에게 小乘敎잇슴이 適者生存의 理에 合함이 다 하거다.

首善提一世의 姪 首善提二世 (Aggabodhi II, 593-608) 가 所한 敬虔한 王者로 國內寺塔을 修補하고 顯覆된 舍利塔을 重建하였스며 大供養院 (Mahapala-bhalai) (玄奘三藏所謂 大尉) 에 花崗石大石槽을 備하고 內務를 기우려서 僧伽를 供養하였다. 首善提二世後에 다시 諸王子의 爭位로 國政이 다

시紊亂하여졌으나 玄奘三藏의 巡錫은 正히 時期
의 供養도 廢하여졌으나 政亂으로 因하여 大供養
院의 供養도 廢하여졌으나 時代의 首都「아누라
다푸라」는 오히려 그 莊嚴한 外觀을 保有하여졌습은
三藏의 記錄과 한가지 常島史料가 一致함으로 보아서
도 可히 알 수가 있다.

寺寶의 掠奪

王位를 爭奪하는 諸王子中 駄都破一世 (Dathapatti
I 601-622)가 「대밀族」의 後援으로 王位를 차지
하며 巨刹寶塔을 破壞하고 所藏金銀塑像과 寶珠器
物을 奪取하고 「후안틸리塔」上에 純金天蓋을 지니 나르
여 金으로 使用하였스며 王의 後援으로 召된 印度兵의
또한 各寺의 寶物과 大供養院의 食器什物을 掠去하였
다 末年에 王이 悔改하여 寺塔을 重修하였으나 다
후의 首善提三世 (Aggabodhi III 623, 624, 652)가
第三次로 王位에 오르며 前王이 掠取하고 남은 寺寶를
마지 奪取하고도 不足하여 無嚴히 舍利塔을 破壞하고
所藏寶玉을 掘出하였다 하니 兩王의 暴虐無道함이 前
古에 못지 못하든 바이다.

寺領의 澎漲

이 法難을 지난 뒤에 迦葉二世 (Kassapa II 652-
681)가 摩訶曇迦底 (Mahatammakathi)大法領(長
老)에 歸依하여 前世 毀法의 復舊에 努力하였스며
駄都破二世 (Dathopattana II 664-673)는 特히 法
喜部(無畏山)에 偏依하여 大寺都領地內에 一寺를
新築하여 이를 法喜部에 寄進하며 大寺都僧侶가 크게
憤慨하여 王家에 對하여 覆鉢을 決議하고 所屬僧侶가
王家의 一切 珍捨를 謝絶하고 甚至於 王立醫院의 療養
까지 받지 아니하였다 하니 王家에 對한 覆鉢도 古今에
稀罕한 일이다.
覆鉢王의 뒤를 이어서 首善提四世 (Aggabodhi IV
Sri Sanghabodhi III 673-689)가 大寺都를 斗讓
하여 所屬寺塔을 重修하고 龍宮寺(Nuggala)大寺都
所屬(住持僧 駄他濕婆長老 (Dathava)에 從)僧侶
하야 佛經을 배우고 長老에 從食邑十一村과 精舍를 寄
進하였스며 三部大寺(大寺, 無畏山寺, 祇園寺)에
各其寺領으로 一邑式을 獻納하고 또 王后 祇陀 (Jet
thi)가 比丘尼寺로 祇陀菴 (Jetharama)을 新築하고

領地를 寄進하니 寺領의 廣大함이 前世에 未曾有하
王의 保法功德을 취하니 稱讚하리요.

그러나 當時國情을 살피면 多年戰亂에 國民
의 疲弊가 滋甚하여 北方은 「대밀族」의 蹂躪을 免치 못
하고 國內貯池가 廢破하고 田野가 荒蕪하여 國家經
濟와 民衆生活이 實로 慘憺함이 있기는 때도 不拘하고
經濟的 純消費員인 僧伽가 三千五千의 多數僧衆과
千村萬戶의 廣大領地를 擁有하였스니 (當時規例
에 依하면 寺領은 王令不入之地라 軍兵, 役夫, 車馬
의 徵發을 不得하며 領地內에서 犯罪人의 逮捕도 任意
로 못함) 三衣一鉢의 出家行色으로 千不當萬不當한
領地領戶는 正히 僧伽의 墮落을 意味함이 「僧院에
寄進한 聚落에서 僧侶의 梵行을 淸淨케 함에는 오주
그들로 하여 公妻妻畜子케 하는 一道가 잇습을 이다」云
云의 大史一節은 우리에 對하여 對할 만하다 大乘敎
團에 잇서서는 前日에 이온바 「淸淨主人」(淸淨)도
容或 無怪요 羅摩羅公도 別시 된다 할 것이 업지만은
小乘敎團에서 도 上座部直系에 잇서서 이와 가치
群瑞을 지 못한 記錄을 우리에 對하여 對할 만하다 當時敎團
內部의 腐敗가 참으로 可憐한 것이 잇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
寺領의 開端은 밀리世紀前 「두라가 마니王」(Duth
Gani)時에 잇섯고 領地의 富裕함은 이 首善提四
世(우트)등이라 하겠다 前者에 잇서서나 後者에 잇서
서나 그本意가 教駕한 歸依와 護敎의 赤誠에 잇섯습
이니 그들의 功德을 稱頌할 만가 업거니와 鯪魚를 먹
고 中毒한 敎團은 누구를 핑할가 如何間當時敎團內部
의 腐敗는 오는 衰退史期를 爲하여 基礎를 着實히 다거
노워진 前만은 事實이었다.

糞掃衣派

其後 「마나와 마니王」(Manawanna or Mahipya 691
—726)治世三十五年間에 祇園만은 學府가 設立되고
塔園以下 各寺를 重修하였스며 精舍를 新築하여 糞掃
衣派 (Ponakulika)에 寄進하였스며 其他 產業과 文
敎가 振興되야 錫蘭은 一時 更生하였섯스며 首都「아
누라다푸라」는 다시 한 번 華嚴한 都城을 일우어 잇는
듯하니 大史의 讚筆을 비려 말하면 「雄偉한 寺塔과 華麗
한 宮闈은 金銀寶珠의 裝飾과 한가지 半空에 빛
나고 小路는 靑沙로 大路는 白砂 兩便에 날아선 것

은 突發한 玉益과 圓(矩)은 彫像이다云云 마치 今日의 文明大都市를 聯想케 할 이 있스니 風餐雨宿 千有餘年の 今日에 「아누라」다 푸라」의 남은 자의 고호 하리 前日의 누구이 었은 것을 말해서 자답하고 잇거든 大史의 이 記錄을 잇지 一向 詩客의 虛構로만 보리오. 다시 吾人의 興味가 그 지 看過 하려고 아니 하는 것은 時代史 面에 나타나 는 「糞掃衣派」다 史料가 糞掃衣 派에 對하여 그 외 來歷 그의 內容 如何 曲折을 이야기 하지 아니 함으로 무엇이 라 臆測키 어 려운 일이다 그러나 歷史가 이것을 既存 三派 中의 所屬으로 잡지 아니 한 것은 正히 이 派의 色彩가 三派의 그것과 殊異 하 었을 말함 이요 또 이것을 別派로 세우지 도 아니 한 것 은 이 派의 存在가 오래 지 못 하엿은 것을 意味함이다. 想像된대 이 派는 그 名稱으로 보아서 當時 腐敗 衰頹한 僧伽에 對한 一種 改革 即 復舊運動이 었는 듯 하 다 糞掃衣로 몸을 가리고 行乞食으로 주림을 띠고 樹下 住로 雨露를 避하고 戒儀가 生命 脈이고 寂靜이 依止 處인 僧伽에 잇서서 王者에 지지 아니 한 富를 가지 고 無爲 徒食 中에 도 함이 잇섯다면 變遷치 못한 論爭이나 이 르키든 當時 敎團의 墮落 相을 보고 참으로 吾佛의

大道를 行코 저하는 眞佛子가 잇섯다면 聖道本義를 眞 既成 僧伽에 對하여 反叛을 하고 改革의 복을 올리 지 아니 치 못 하엿을 것이니 糞掃衣派의 出現이 正히 어 려 한 意味에서 가 아니 었는가? 그러나 糞掃衣派가 他派 에 對하여 挑戰한 形跡이 史面에 보이지 아니 함으로 보 아서 이 派의 改革運動이 積極的이 었섯다고는 할 수 없 고 一種 消極的 改革運動이 었는 듯 하 다 即 非妥協的 運動이 었는 듯 하 다 名稱인 糞掃衣派는 그 衣制로 부 러어 본 이름 일 것이니 糞掃衣를 衣한 그 僧侶 僧徒 食 之 住之가 다 如法 하엿을 것은 臆測키 어 려지 아니 한 일 이며 伊後 諸王에도 當派에 對하여 四營을 寄進한 일은 種種이 었스나 法外의 領地 領戶를 獻納한 事實을 못 지 못 하엿습니다 吾人 想像에 幾分 間雜 質性을 증언 가 한다 그러나 糞掃衣派 史에서 오래를 수가 업시 忽然히 나타나서 忽然히 사라지고 錫蘭 僧伽의 腐敗는 간사 毒甚 하엿스니 아 지 못 기라 糞掃衣派는 泥中에 白砂이 었은가? 顛覆의 一木이 었은가?

印度敎의 基礎

「세」나」一世(Sana I 316-366) 時에 南印度「파

「드」아」國(Pandya)라 말한 王이 大軍을 지느리고 侵 入하며 防禦할 수가 업서서 「폴」나 푸라」로 逃」하고 首都「아누라」다 푸라」는 印度族에게 陷落되야 「파 國」王이 宮中寶物과 各寺金像을 掠奪하여 가지고 南印度 로 回軍 하엿다.

印度族의 退去後에 王은 다시 「아市」로 도망 하섯스나 印度族의 再襲을 念慮하여 首都를 「폴」나 푸라」(Polihurawa of Palit)로 옮겼다 이는 「포市」가 前都 「아市」로 부러 東南約七十餘哩의 相距가 잇는 그 間을 印度族과 의 세이가 밀어 진 同時에 山峻 路險 하여서 他民族이 犯키 어 더운 「루후나」가 그 間을 갖기 위해서 이 安全地帶로 避難하기가 利로 옴으로써 「아市」나 建 國以後의 古市로 入敎以來의 靈場인 「아市」를 버리 고 「포市」로 退却한 후 獅子族의 勢力이 그 間을 萎 縮되엿을 意味함이다.

後世에 屬屬된 編年史에 依하면 이 戰亂 中에 聖齒 道 印度族에게 掠奪되엿다 하나 이 事實의 問題가 根 本史料에 나타나지 아니 한 것은 吾人으로써 하여 前考 者의 記錄을 疑心케 한다.

「세」나」二世(Sana II 876-901) 第九년에 「파」

「드」아」國이 그의 隣國인 「초」나」國과 交戰하는 事을 하 서 精兵을 보내 「파」드」아」國都城 「마푸라」(Madu)를 不意에 掩襲하여 國王을 죽이고 前日에 奪앗 것 은 寶物을 掠奪 하엿다.

그後 몇해 동안 다시 外侮가 업서서 一時 小康을 있게 되야 王은 治民과 護敎에 힘써서 國內에 異敎徒 를 淸服하고 寺塔을 重修 하엿스며 次王 「우다야」 一世(Udaya I 901-912)는 스스로 佛敎를 研究하여 法句經 義解一卷(現存)을 著述 하엿스며 蘭尊 寺塔이 또 한 王의 治世에 修築되엿다.

그러나 이 小康은 「대」밀族의 內亂으로 인하여 었을 이요 그 亂의 內亂이 終熄되매 「파」드」아」國과 「초」나」國이 連 年 互에 侵入하여 兵亂이 屢히 지지 아니 하되 「麻 晒陀」五世(Mahinda V 1001-1017) 時에 「초」나」國 「라」차」타」차」大帝(Rajaja I 985-1012)가 南印 度를 統一한 餘勢를 이용하여 錫蘭을 掩襲하며 錫蘭王은 「포市」로 직히 지지 못하고 南隣 「루후나」로 逃」하 나 이 에 王領의 全部가 大帝의 손으로 도망가서 錫蘭을 「초」 나」帝國의 一領州로 만들고 「폴」나 푸라」에 都督都를 두어서 前王領 即 本島 中 南部에 盤踞한 高原으로 부터 國

佛敎 第三十六號

北地區를 直割하고 南陸, 平壤, 平山(平壤의 約三分之一)만이 錫蘭王의 治下로 되었고, 莫大社年貢을 都督에게 바치게 되었다.

이와가치 全島가 印度族의 勢力下에 들게 되며 征服者의 宗敎인 印度敎가 西北一帶에 蔓延되고 「포시」에는 雄大한 印度敎寺院이 建立되고 國民은 印度敎僧侶에게 供養을 드리거나 出家하게 되었다.

佛敎가 渡來한 以後 國宗이 되어 國內에 一介의 異敎徒가 合을 못지 못하겠으니 第五六世紀以來 國方衰退함을 여러 外交政策上 錫蘭王의 多分이 印度王家

壬辰兵亂과 朝鮮僧兵의 活躍 (續)

素 荷

와 結婚하여 印度敎神의 崇拜가 內宮에서는 50年前부터 잊지는 못하나 國民信仰과는 平交涉이 없었으며 九世紀初에 海岸에 漂着한 印度敎主神毘紐(Śiva) (像을 「포시」에 迎入한 일이 있스나 亦是民間信仰의 對象으로 가아나였스며) 세나나 二世時에 印度敎가 蔓延됨으로 王이 嚴禁하고 國境에 僧兵을 두어 異敎의 渡來를 監視하였으니 이제 印度敎가 都督部의 後援下에 公然히 宣傳되야 佛敎의 獨은 地盤을 占據하기 시작하니 印度敎가 將來 本島 宗敎界의 第二黨의 地位를 獲得할 基礎물이 時代로부터 發키기 必한 것이다 (未完)

七

前에 逃한 바와가치 平壤에서 奮戰한 明軍

及 義軍(僧軍)은 平壤에서 倭軍을 克服한 後 松都를 復하고 一舉에 京城을 還收한 지라 西山大師께서 勇士百人을 率하고 大駕를 迎하사 京都에 還御

케 하시었다. 이러한 勝利의 原因은 明軍의 應援이 있습도 一稱의 原因이라고 하겠지만 가장 重大한 原因은 義勇爲하야 奮起한 僧軍이 國內에서 이러한 奇蹟이라고 하겠다. 왜그러나 하던 아모리 勇將한 應援이 있드래도 自身이 勇敢하지 못하면 敗하고 마는 事蹟이다. 李朝가 後代를 通하야 西山大師께서 救世의 主를 상제됨도 奇蹟이 있는 일이다. 戰後에 明贊贊 李如松이 가 西山大師의 帖을 받하야 嘉贊贊 文中에 「爲國討賊 忠誠貫日 敬仰不勝」이라고 한 文句가 있스며 다시 다음과 같은 詩를 贈呈하였

「無意圖功利 專心學道仙 今聞王事急 搥搥下山 顛。」

그리고 李提督과가치 諸將官도 爭先하야 帖을 送하고 贊辭를 呈하였다.

그런데 國朝實錄에 「僧軍은 비록 能히 接戰치 못하였으나 警備에 善하고 力役을 勤하였습으므로 諸道「此에 賴하나다」함을 보던대 儒者들이 排佛의 野心으로써 僧軍의 戰功을 掩蔽한 것이 明了하다. 만일 國朝實錄의 말과가치 僧軍이 接戰하지 못하였을

것가 되면 明將이 이와가치 西山大師의 贊辭를 바칠理가 萬無하며 是는 「爲國討賊」이라는 말이 矛盾이 아닐까 設使僧軍의 戰功을 아모리 抹殺시키라 한 李明將으로부터 僧軍의 戰功을 贊辭한 法帖이 現今 妙香山에 保存되어 있스나 잊지하라?

戰功을 이 後 西山大師께서는 「臣의 年 八十에 垂하야 筋力이 다한 지라 請願대 軍事를 弟子惟政(松雲)及 處英(雷默)의 代屬하고 印授를 받치고香山의 舊樓로 도라가겠노이다」하고 表를 바치시었다. 그렇으므로 宣宗께서도 此를 許하시고 「國一都大禪師, 神敎都總攝 扶宗樹敎 普濟登階 尊者」라는 二十一字長文字의 號를 賜하시었다. 이와가치 賜號는 律敬의 極致를 表한 것이다. 支那에서도 明代의 初에 二字號, 四字號, 乃十六字號의 制度를 定한 것이 있스나 이와가치 二十一字의 長文字의 號는 支那에서 卽例를 볼 수 없는 賜號이다. 말하자면 支那及日本에서 例를 볼 수 없는 絕倫拔例의 賜號라 하겠다.

其後 西山大師께서는 高齡八十五時에 自家의 影幀後에 「八十年前渠是我 八十年後我是渠」의 句를 題하시고 跏坐하사 涅槃하시며 遺骸가 더욱더

佛敎 第三十八號